

뽀통령 누른 '티니핑' 열풍 등골 휘는 부모들 '핑도네'



하츠티핑

애니 인기 속 갖다 붙이면 '핑'...하츠티핑·바로핑 등 100여 캐릭터 양산 수만원하는 인형·장난감 구입 수백만원 지출도...부모들 '파산핑' 자조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 사이에서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의 캐릭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제품이 쏟아져 광주·전남 학부모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100개에 달하는데다가 가격대가 높은 '굿즈'(Goods) 종류도 매일같이 발매되는 탓에 '파산핑'(파산+티니핑), '등골핑'(등골+티니핑)이라 불릴 정도다.

고물가에 생활비가 부담이 높지만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알뜰한 상술인줄 알면서도 지갑을 열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호소다.

캐치! 티니핑은 지난 2020년부터 시즌을 거듭하며 방영되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지난 4월까지 시즌 4가 방영됐다.

귀엽고 알록달록한 색의 특징적인 캐릭터 때문에 '제2의 뽀로로'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 2030 성인들도 굿즈를 구입하고 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사랑의 하츠티핑'은 누적 관객 111만명을 기록했고 티니핑을 주제로 한 뮤지컬

'두근두근 심어롱 콘서트'도 전국 순회공연을 다닐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티니핑 애니메이션의 시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캐릭터가 줄잡아 100여개에 달한다.

부모들은 새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에게 시달린다. 캐릭터 당 제품 하나 가격은 과하게 비싸진 않지만, 다양한 캐릭터가 추가로 나와 아이들이 추가로 구매하려는 탓에 부담이 커지는 설명이다.

다양한 캐릭터만큼 장난감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어 부모들은 "굿즈보다 모으다가 파산하겠다"고 푸념한다.

24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대형마트 장난감 매대에는 티니핑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티니핑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 메이커, 꽃다발, 무대세트, 집 만들기 등 품목도 다양했다. 가격은 9900원에서 7만3900원까지 이뤄져 있었고, 인형은 2만~3만원대다.

이날도 티니핑 장난감은 동이 나 직원이 메인 매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사는 원모씨의 집에 250여만원 상당의 티니핑 인형과 피규어가 놓여 있다.

〈독자제공〉

대 '하츠티핑 냉장고', '사랑의 하츠티핑 하우스' 티니핑 시리즈 장난감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형 장난감 할인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티니핑 시즌 5를 앞두고 티니핑 장난감을 사 모으는 자녀들이 꾸준히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판매가 주를 이루고 온라인 구매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 30개씩

꾸준히 판매될만큼 인기가 좋다고 할인점 관계자는 설명했다.

티니핑 시리즈는 대형프랜차이즈들과 콜라보(커피업체, 햄버거 업체 등)를 진행해 최근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감은 더해지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 학부모들은 "갖다 붙이지만 하

면 모두 핑이냐"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장난감의 퀄리티도 좋지 않아 쉽게 부서진다는 불평도 있다.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주말이면 '사랑의 하츠티핑' 영화를 보고 점심으로 햄버거업체에서 티니핑 관련 세트트를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굿즈를 구매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사는 원모(42)씨는 "아이 좋아하는 모습에 하나 둘 모으다보니 250만원이나 썼다"고 토로했다. 하나씩 사주다보니 어느새 100개 넘는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이 원씨의 설명이다.

또 학부모들은 티니핑 뮤지컬을 보기 위해 열띤 티켓팅을 하기도 했다. 맨 앞자리를 예매하기 위해선 예매장이 열리는 때를 기다려 이른바 '티켓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시즌 5가 나올 때 추가로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시즌 5에는 최대한 사주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아이를 현혹하는 캐릭터가 쏟아져 나올 게 뻔하다"며 "상술인줄 알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온힘 다해” 환경미화원 체력시험 광주시 서구청 가로환경미화원 체력검정 시험이 24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다. 검정 참가자들이 100m 달리기하고 있다. 이날 체력검정에는 2명 선발에 42명이 응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시속 100km 만취질주...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유

스쿨존 충돌사고로 동승자 사망

만취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km 이상 고속으로 달린 대학생이 정차한 차량과 충돌해 정차한 차량을 전도시켰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초등학교 앞 2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스쿨존에서 시속 105.4km로 달리다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량에 탑승한 점과 A씨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 추적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심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잿등육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23)씨가 하반신 등에 중상을 입었으며, 동승한 B(여·28)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승용차에는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고 직후 현장에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iyou@

'딤페이크 음란물' 벌미 협박 10대 2명 입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딤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하겠다고 여성들을 협박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딤페이크'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로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3명의 딤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고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화방 멤버들은 피해자들을 모르는 타지역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합성 음란물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의 SNS계정의 개인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10대 2명과 대학생 한 명으로 금전을 요구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했던 제작자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4건의 딤페이크 관련 신고를 접수해 2명을 입건하고 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번호

대학생이 판매...130여명 피해

광주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외부로 팔아 넘겨 13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4일 광주의 한 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에 담긴 타인의 번호를 외부 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겨 해당 학교 교수진이 긴급 회의에 나섰다. 유출된 번호는 130여명에 달하며 재학생을 비롯해 일부 교수진도 피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현재까지 번호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연락이 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